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김성일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재앙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취약계층 고통증가, 높아진 복지수요 기대감,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보듬어야 할 사각지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의 삶이 심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19 사태는 국내외에서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중)되어 희망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고 우리 모두가 감염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군전우회는 정부의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계획된 사업 중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은 대부분 축소 시행 또는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연례 행사로 실시하였던 6.25출격 원로조종사 및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행사는 연말 위로 선물 보내기로 대체하였고 세곳의 일선전투부대에 위문품을 전달 하였으며 통상적인 회원관리, 보라매지 발간 및 운영 기금확보수단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군발전협회는 지난 6월 24일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항공우주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항공우주력연구' 제8집을 발간하였으며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였던 용역과제연구는 지난해에도 4건의 과제를 수주하여 3건을 완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는 등 연구위원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연구내용에 반영하

였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하에서 두 단체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사와 함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해왔으며 특히 6.25전쟁 당시 전투기 한 대 없이 연락기 20여 대로 출범했던 우리공군이 이제 5세대 스텔스전투기,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한 세대 발전된 첨단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현역 장병들의 노력은 물론 공군을 거쳐 간 모든 공군인들이 쌓아온 피와 땀의 결실이기에 공군인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태세는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전략, 새로운 무기체계, 새로운 지휘통제체계 등을 구상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정세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그 동안 관련 당사국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남북간, 미북간 각종 협상은 진전없이 현재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새해에도 과연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전쟁 억제력'을 운운하면서 '괴물'이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5월 이후 모두 17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사거리 정확도를 높이고 고체연료를 개선해 나가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단된 방위비 분담협상 재개, 중단 또는 축소되었던 각종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이 새롭게 탄생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는 한미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간의 갈등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은 더욱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안보단체들은 현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등 국방의 제2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겠지만 공군전우회와 발전협회도 현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보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공군전우회와 발전협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두 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공군전우회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 지부/지회와 공군발전협회의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김성일

2020년도 "탑건" 한재석소령에 공군전우회 보라매상 시상

공군전우회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이 가능한 가운데 12월 29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공군 2020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2020년도 탑건(Top Gun)으로 선정된 제20전투비행단 한재석 소령(공사 59기)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과 포상금을 전수했다.

KF-16 전투조종사인 한 소령은 '공대공 요격' '공대지 폭격' '공중비상대기항공차단(X-INT)' 부문에 참가해 '공대지 폭격'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만점을 받으며 총 1000

점 만점에 965점을 얻어 탁월한 공중전투 기량을 뽐냈다.

한 소령은 2013년 비행 훈련을 수료하고 20전비 123전투비행대대에서 줄곧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비행시간은 주기종 KF-16 820여 시간을 포함해 총 1040여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보라매상은 2009년도부터 탑건으로 선정된 조종사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제도화하여 상장, 상패 및 포상금 1백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내방

지난 9월23일 취임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대장, 공사34기)이 10월27일 취임 인사차 본회 김성일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본회 김 회장은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단체는 공군 발전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예비역단체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대답을 나누고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시의 경험담 등을 이 총장에게 전해주었다.

신임 이 총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공군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군전우회-삼육의료원간 의료 및 장례서비스 협약 체결

본회 김성일 회장과 삼육의료원 최명섭 원장은 12월17일 공군전우회원 및 가족을 위한 의료 및 장례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서비스 내역은 1)종합검진 할인 혜택 20%, 2)공단검진 할인 혜택 10%, 3)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 할인혜택 비급여의 10%, 4)산후조리원 할인 15%이며 중복 할인은 안된다.

장례서비스 내역은 1) 삼육리더스상조 이용시는 시설사용료(빈소료, 안치료, 입관실 사용료) 30% 할인, 1회용품 무료제공(150인분), 근조화 1개 제공(삼육서울병원장), 발인 행사장 1회 무료사용(발인 예배, 발인 제사시), 삼육리더스상조 상품을 후불제로 사용

가능하고, 2)상조회 없이 이용시는 시설사용료(빈소료, 안치실, 입관실 사용료) 20% 할인 및 발인 행사장 1회 무료사용(발인 예배, 발인 제사시)이 가능하며, 3)타 상조회사 이용시는 시설사용료(빈소료, 안치료, 입관실 사용료)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삼육의료원은 서울 및 부산에 두 곳이 있고 서울병원(대표전화 1577-3675)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병원(대표전화 1566-3675)은 부산광역시 서구 대티로 170에 위치해 있다.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공군 전역증 또는 공군전우회원증을 제시하면 된다.(광고란 참조)

공군예비역 단체 회장단 간담회



본회 김성일회장, 최차규 공사총동창회장 및 윤광호 공군학사장교회장과 각 회 수석부회장·사무총장 등 9명은 공군학사장 교회장의 초청으로 11월 12일 만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공군예비역 단체의 활동이 공통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예비역 단체의 활로를 모색하고 공군 예비역 단체간 유대를 강화하여 서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일 본회 회장은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지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서 “발전하려면 배가 드넓은 바다로 나가 항해해야 한다” “우리가 비록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예비역 단체끼리 서로 친목을 다지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단합한다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25 출격조종사 및 순조회원에 연말 위로 선물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수칙 및 사회적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공군 6.25 출격원조종사 및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순조회) 초청행사가 취소되고 위로 선물전달로 대체 되었다.

이번 6.25출격조종사 초청행사는 공군전

우회와 공군학사장교회 공동주관으로 12월 2일 계획하였으나 취소하고 주소지가 확인된 19명에게 위로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순조회원 초청행사는 공군전우회와 공사총동창회 공동주관으로 12월 4일 계획하였으나 취소하고 51명의 회원에게 각각 위로 선물을 전달했다.//

대구지부

대구지부(회장 남상석)는 11월12일 안동시 도산면에 소재한 이일영 공원에서 안동시청이 주관한 6.25전쟁 영웅인 (고) 이일영 공군중위 추모행사에 6.25참전 회원을 포함한 10여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넋을 기렸다. 매년 버스 2대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나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제145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보라매상 시상



공군전우회는 12월1일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45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공군전우회상인 보라매상을 전수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회장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사에 위임수여하였는데 노석우 소위가 보라매 상장과 부상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

이번 임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대 개인 간 2m 거리 유지, 행사장 사전 소독, 행사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인 초청 없이 열렸다.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행사는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임관한 196명의 신입 장교들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등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말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대했다.

이후 12주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에 훈련 중 마스크 착용, 특박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군인정신 등을 함양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정예 장교로 거듭났다.//

제주지부

제주지부는 10월 20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부 임원진 위주의 회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결산보고, 예산안 승인, 지부장 취임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 취임한 좌중언 지부장에게 중앙회장의 임명장을 김세환 지부고문이 전수했다.

신임 좌 지부장은 취임사에서 “제주지부의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가기 위해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적극 성원해 달라”며 “회원 확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제



제주지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정도진)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11월중 2회에 걸쳐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수원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약 750명에게 갈비탕을 요리하여 가가호호 배달하였고, 사랑을 나누는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하여 수원시에서 추천 받은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각각 200장의 연탄을 배달하였다.//



미래전 핵심 전략부대 '39정찰비행단' 출범

공군은 11월3일 충주기지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39정찰비행단 창설식'을 거행했다. 지난 2018년 7월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하나로 추진된 정찰비행단 창설에 따라 감시정찰 능력 강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조건 충족에 더욱 다가가게 됐다. 또한 분산 배치된 감시정찰 전력에 대한 지휘체계 통합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정찰비행단은 RF-16 등 기존 정찰자산들과 현재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포함해 총 5개 기종의 항공 감시정찰 전력을 운용하게 된다. 전투기·공중기동기·무인기 플랫폼으로 구성된 정찰비행단의 항공전력은 각 특성에 따라 고도·임무별로 구분돼 한반도 전 지역을 감



시한다. 공군은 "기존에도 39정찰비행전대를 운영해 항공 감시정찰 작전을 수행해 왔으나, 신규 정찰자산 도입과 더불어 미래전의 감시정찰 능력 중요성 증대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부대 규모를 격상해 핵심 전략 부대인 정찰비행단을 새롭게 창설했다"고 설명했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공군은 12월 29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본부에서 '2020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상자들과 군 주요 내빈 등 최소의 인원만 참석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 1000점 만점에 965점을 얻은 20전비 한재석 소령이 2020년도 탐견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밖에 개인 수상자로 '공중기동기 공중투하' 부문에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258공수비행대대 CN-235 수송기 조종사 이세리 소령이, '공중기동기 탐색구조' 부문에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 233탐색구조비행대대 HH-60 헬기 조종사 광명석 소령(진)이 각각 선정됐다. 대회 단체부문 종합 최우수대대로 20전비 121전투비행대대(KF-16)와 공군8전투비행단(8전비) 비행대대(FA-50)가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한, 사격대회에 처음 참가한 조종사 중 분야별 성적이 가장 우수한 조종사에게



수여되는 우수신인상은 8전비 237전투비행대대(KA-1) 전유환 대위 등 10명에게 수여됐다. 신인상은 지난 2012년부터 매경미디어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다. 한편,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공군에서 최고의 공중 전투기량을 갖춘 조종사와 대대를 선정한다. 1960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로 61회를 맞이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지난해 대회에는 10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투기' 분야 조종사 130여 명과 '공중기동기' 분야 조종사 30여 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12월22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공군지휘관 회의'에서 "내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참석한 주요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이 총장은 "2021년에는 풍신연등(鳳巡鸞騰·바람이 세계 불수룩 연은 더 높이 난다는 의미)의 자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실을 다지며 도약의 기회로 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에 진행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결과를 전파하고, 2020년 업무성과 분석 및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다.//

하늘 지키는 '골든 아이' 선발

공군방공관제사령부 31방공통제전대 전성환(29) 준위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51항공통제비행전대 김병용(32) 준위가 2020년도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통제사)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10월20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제41회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통제사는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적기의 고도·속도·침투 방위와 아군 요격기의 상대적 위치 등을 고려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접근 고도·속도·방위를 제공해야 한다. 공군은 통제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를 개최하며, 우승자에게 '골든 아이



(Golden Eye)'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결과 전 준위는 지상통제체계(MCRC·중앙방공통제소) 부문, 김 준위는 공중통제체계(E-737 항공통제기) 부문 최우수를 차지해 합동참모의장상을 받았다.//

8전비 103전투비행대대, 4만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8전투비행단(8전비)은 11월 20일 국산 항공기만을 운용하는 8전비 소속 103전투비행대대가 지난 11월17일 임무를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4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 이날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103대대는 국산 항공기인 FA-50을 최초로 운용한 전투비행대대다. 이번 기록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여 동안 F-5 기종을 운용하다가 같은 해 5월, 현재 운용 중인 FA-50으로 기종 전환 창설된 후 오늘날까지 2개 기종에 걸쳐 총 12년 동안 이룬 성과다. 한편 8전비는 2015년 8월부터 FA-50을 함께 운용한 203전투비행대대가 지난 1월 '5만 시간 무사



고 비행기록'을 달성하고 국산 항공기 KA-1을 운용하는 237전투비행대대는 2018년 12월 '1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하는 등 소속 전투비행대대가 연이어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국산 항공기의 안전성과 8전비 조종사의 우수한 항공작전 수행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16전비 115전투비행대대 1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6전투비행단(16전비) 115전투비행대대가 '무사고 비행 기록 11만 시간'의 금자탑을 쌓았다. 부대는 지난 12월 초 자축 행사를 열고 참모총장 대대표장과 함께 115대대 박형우(임)소령 등 12명에 대한 시상식을 했다. 이번 비행 기록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26년1개월간에 걸쳐 수립했다. 특히 국내 기술로 제작된 TA-50을 운용해 국산 항공기



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대는 이를 위해 평소 체계적인 계획 정비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왔다.//

3훈비 217비행교육대대 10만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3훈련비행단(3훈비) 217비행교육대대는 12월9일 오후 3시, 부대 소속 정희상(소령) 비행대장과 장민석 중위(진)가 탑승한 KT-1 훈련기가 훈련을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217비행교육대대는 2000년 6월 15일부터 약 20년6개월 동안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국산 항공기 KT-1 훈련기를 운용하며, 대대 창설 이후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8전비, 공군전승공원 개장

공군18전투비행단(18전비)은 11월 20일 공군 강릉기지 역사를 대표하는 '공군전승공원'을 개장했다. 부대가 지난 6월부터 조성해 온 이 공원은 6·25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출격작전(1951년 10월 11일)과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포격작전, 351고지전투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공군 3대 작전을 수행해 빛나는 전과를 자랑하는 강릉기지의 역사의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대는 공원 조성을 위해 6·25 당시 주력으로 운용된 F-51D 무스탕



등 3기의 기체가 전시된 기존의 항공기 전시장에 대한민국 공군과 부대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O-2A, F-5A, F-5E를 추가 전시했다. 또한 전시장 관람로에 6·25 당시 공군의 역사와 부대 역사 안판관, 공군캐릭터, 부대의 미래를 상징하는 KF-X 등이 포함된 포토존을 만들어 관람자들의 친근감과 접근성, 편의성을 배가했다.//